

피터 아이젠만의 해체주의 이론과 작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construction Theory and the works of Peter Eisenman

이지민* / Lee, Ji-Min

Abstract

Deconstruction, which aims at art for pure art's sake, along with post-modernism which pursues for de-unification and variety, is the trend of design characterizing the contemporary society. Responding to this trend, in Korea, the design which advocates post-modernism has been begun and the trend of deconstruction spreads among young architects and designers and this trend is shown in furniture, accessories and lighting design, as well as in interior design.

This study is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movement of recovering the limits of the existing one is the thinking of deconstruction. By analyzing and considering the theory and works of Peter Eisenman who shows the trend of deconstruction, this study tries to disclose the design theory of deconstruction and get the reasonable approach toward the progress of design resulting from the progress of human being, science, and humanities.

키워드 : 구조주의, 탈구조주의, 해체주의

1. 서론

오늘날 탈 획일화,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과 함께 순수예술지상주의를 지향하는 해체주의는 동시대를 특징짓는 디자인 경향이다. 이러한 경향에 부응하여 국내에서도 포스트모더니즘을 표방하는 디자인이 시도되고 있으며 해체주의의 경향은 젊은 건축가들과 디자이너들에게도 급속도로 파급되어 실내공간 디자인은 물론 가구나 집기, 조명 디자인에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의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피상적으로만 포스트모더니즘을 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난해한 해체주의 자체를 이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80년대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해체주의 건축은 구조주의 언어 체계에 반대하는 탈구조주의에 그 이론적 준거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 건축의 주요 경향들이 구조주의적, 혹은 탈구조주의적 언어관에 입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체주의 건축가 중에서 피터 아이젠만은 구조주의 언어학자인 노암 촘스키의 '변형생성이론'에 근거한 입장과 탈구조주의자인 자끄 데리다의 '해체' 이론에 근거한 탈구조주의 입장을 작품 시기별로 나타내고 있어 현대 건축의 언어 중심적인 특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피터 아이젠만을 중심에 놓고 조형 형태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또한 어떤 디자인개념에 의해 생성되는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그의 조형 형태의 구성원리를 논함으로써, 우선적으로 아이젠만에게서 보여지는 극단적 전위의 사고와 이에 의한 이탈, 부정, 차이 및 파괴를 표명하는 그의 조형 형태를 통한 그의 궁극적 의도는 무엇인가를 밝혀 그의 건축의 한계 및 의의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아이젠만이 자신의 건축작품을 생성하는 원리를 도입한 구조주의와 탈구조주의의 이론을 우선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디자인 언어를 정리하였으며 그의 작품을 개념에 따른 형태 표현방법과 디자인 형태에 따라 분석하였다.

2. 해체이론의 생성배경 및 전개과정

2.1. 구조주의와 탈구조주의

(1) 구조주의의 전개

구조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부터 유럽사회에 현저한 영향을 끼친 현상학과 실존주의에 비교될만한 1960년 이래 생긴 프랑스의 새로운 과학운동이다. 또한 독일의 비판이론도 이와 비슷한 맥락, 즉 '의미'의 문제를 다루며 발전하였다. 비판이론이 주로 의미의 '사회적'기원에 관심을 가졌고 현상학이 '실존적' 기원에 관심을 가졌다면,

* 정회원, 여주대학 산업디자인과 조교수

구조주의는 의미의 언어적 기원을 강조하였다.¹⁾

2차 대전 이후 구조주의는 파리 고등사범학교 출신의 지식인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인류학 자크 라캉의 정신 분석학, 롤랑 바르트의 문예비평 등의 영역으로 개척되어 나갔다.²⁾

(2) 구조주의의 기본적 특성

구조주의의 기본적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언어를 모든 체계의 기본으로 상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구조주의가 소쉬르의 언어학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언어에서 출발하여 그 영역을 확산하고 있는데 이는 ‘기호의 팽창’을 야기한다.

둘째, 개개의 특성보다는 그것들의 근간을 이루는 어떤 체계나 문법 곧 구조의 발견에 더 관심을 둔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념은 곧 언어의 자체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문화 및 사회체계들 - 문학, 인류학, 신화 등 -을 연구할 때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구조주의자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양보다는 그 근저에 숨어있는 어떤 공통된 체계나 법칙이나 틀을 찾으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실존주의와의 논쟁에서도 본질적인 문제는 주체에 관한 것이었는데 구조주의에서는 주체는 자립적 실체일수 없으며 관계 속에서 파악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탈구조주의에서도 이러한 관계 속의 파악이라는 점은 유지되고 있다.

(3) 구조주의의 한계 및 탈구조주의 이론의 대두

1970년대부터 구조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탈구조주의의 움직임이 일어났으며, 구조주의의 한계와 탈구조주의의 이론의 특성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³⁾

<표 1> 구조주의와 탈구조주의의 특성비교

구조주의	탈구조주의
구조 내부에 있는 개개의 텍스트들의 특성과 가치는 지나치게 경시한 채 전체적인 구조만을 중시함으로써 개체를 종속시키는 전체주의(totalitarianism)적 특성을 나타낸다.	전체적인 구조보다는 개체의 존엄성과 자유를 인정한다.
보편적인 구조, 문법, 구문 또는 법칙을 찾아내고 수렴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경직된 과학적 이론이 되고 말았다.	사건의 경직화 및 문학과 학문의 과학화를 배격하며 이상 중심적 태도를 지양한다.
하나의 고조, 하나의 체계를 분리해내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역사를 무시하는 비역사적 태도를 보이게 된다.	역사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역사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표명하며, 과거를 향수가 아닌 탐색의 대상으로 취급한다.
자아나 주체나 개인적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객관화시키는 비 인본주의적·비 실존주의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자아와 주체를 중요시한다.
구조는 곧 모든 것의 기원이나 중심이 되며 개체에 대해 특권을 부여받는 존재가 된다. 이러한 생각은 말/글, 심층구조/표층구조, 자연/문명, 서술/묘사 등으로 모든 것을 이분화 시킨 다음, 첫 번째 것에 특권을 부여하는 구조주의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다.	절대적인 진리나 중심이나 근원의 독선과 행포를 거부하며 이분법적 사고방식으로부터 탈피하여 타자를 인정하고 포용한다.
언어체제는 곧 기호체계를 의미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기호의 재현능력도 의심하지 않았다.	모든 기호와 그것들의 재현능력을 불신한다.

1)Richard Kearney, 현대 유럽 철학의 흐름, 임현규외 옮김, 한울, 1992, p.12
 2)이광래, 미셀푸쿠, 민음사, 1989, pp.13-29
 3)양세은, 해체주의의 관점에서 보는 조형 언어적 개념과 실내 환경 디자인에의 접근 방법에 관한 연구, 이대 석사학위논문, 1993, p.32

2.2. 해체 이론의 발전

구조주의를 비판하는 탈구조주의가 대두될 무렵, 푸코의 제자 데리다는 해체 이론을 통하여 구조주의를 비판하고 나서며, 또한 탈구조주의 조차 ‘해체’라는 두기로 비판한다. 데리다의 해체이론은 좀더 나아가서 서구 철학의 중심이 되어온 로고스 중심주의(Logocentrism)를 비판하며, 영역의 해체를 주장함으로써, 철학/문학/예술 등의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해체이론이 문예비평이나 건축 등에서도 수용되고 있다.

이러한 확산으로 말미암아 다른 포스트모던 철학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유사성들이 발견되고 있으며, 철학 계에서는 해체를 이미 포스트모던의 한 경향으로 보는 인식이 대두되고 있다.

3. 해체주의의 디자인 이론

3.1. 해체주의의 디자인 개념

데리다의 해체이론은 의미와 기호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출발한다. 즉 ‘의미’란 주관에서 가져온 허구적 구조물일 뿐이다. 기존의 구조나 기호의 개념은 의미의 중심이 현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데리다는 이것을 하나의 환상이며 대체물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외부로부터 파괴가 아닌, 내부의 근본적 해체를 추구하는 데리다의 해체이론은 ‘구조’나 ‘총체성’ 등에 대한 저항이며, 불안정과 무질서를 그대로 포용하며, 다양성과 열림을 추구하는 것으로, 더 이상 중심의 추구가 아닌, 중심의 부재를 인정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해체이론의 가치 및 의의는 삼각형이나 원으로 상징되는 안정과 정지의 상태를 추구하던 기존 형이상학의 토대를 해체하고 열린 다각형의 상태를 지향했다는 데에 있게 된다.⁴⁾ 해체이론의 기본 개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흔적(Trace)

절대적 진리나 의미는 흔적으로서 항상 유보되어 있으며 그 결과 실재로 제시되는 것도 실상은 허구이거나 은유일 뿐이다.

이 개념은 해체주의의 디자인의 구성에 있어 폴라주, 덧쓰기 등의 기법으로 적용된다.

(2) 탈중심성, 탈중력성(Decentring)

외부로부터의 파괴가 아니라 내부의 근본적 해체를 통하여 불안정과 무질서를 그대로 포용하고 다양성과 열림을 추구한다.

(3)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Text의 자율성(Autonomy)을 거부하며 언동해위(Discourse)의 형태들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중첩된다고 본다.

(4)차연(Difference)

데리다가 만들어낸 신조어로, 재현행위는 결코 ‘그것’이 될 수 없으며, 단지 ‘그것’과 차이가 나고 (Difference), 그것을 유보, 지연시킬 수 있다는(Deferral) 이중적 개념이다.

4)최인환, 데리다의 해체이론의 전략과 한계, 민음사, 1988, p.56

(5) 산종(dissemination)

산종이란 본래 종자가 출생지로부터 다소라도 멀리 떨어져 여기 저기에 뿌려지는 것을 의미한다. 데리다 에 의해서 이 단어는 어떤 단어가 처음 사용된 장에서부터 떨어져 나가 곳곳에 흩어지고 새로운 의미 작용을 어떻게 해나가는 가를 가리킨다. 또한, 산종은 모든 사항을 적어도 잠재력으로 보충하고, 본질적으로 무한히 치환하게 하는 이론인 동시에 그것의 실천이다.

3.2. 해체주의 디자인 원리

해체주의 디자인에 있어서 조형 개념의 표현요소들은 전술한 해체 이론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공간 구성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⁵⁾

(1) 탈구성적 표현(Decomposition)

탈구성이라는 용어는 철학적 분해라는 용어와 유사하다.⁶⁾ 이것은 텍스트를 개념적으로 분해해서 분석하고 어떤 구조적인 범주 안에 이를 위치시키는 것이다. 이는 하나의 분석도구이며, 조작 가능한 오브제의 참조과정이나 물리적 특성에 대한 특정한 자세를 시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계가 없는 것들의 상호관계가 무작위 적으로 이루어지고, 의도적으로 형태를 만들어 내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무작위라는 것은 그 반대의 경우, 즉, 질서라고 알려진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설계과정은 변형을 통해 이루어지나 단순한 변형의 영역을 초월한 무의식적 설계가 변형만을 통해 전개될 수 있는 이미지의 질서, 근원을 탐구하는 것으로 탈중심은 전통적인 디자인의 설계과정의 역을 취한다.

(2) 탈중력적 표현(Decentring)

해체주의 건축에서는 벽, 바닥의 지면에 대한 기존의 개념을 깨고 경사진 벽면과 기울어진 바닥 등을 자주 등장시킨다. 이것은 건축구조의 기본 전제였던 중력이라는 고전적인 규범에 대한 반발적 표현이며 열린 사고의 반영이다.

수직, 수평성으로 부터의 탈피는 중력작용의 왜곡을 위해 건축디자인의 기본구성요소인 기둥, 벽체, 바닥평면, 상부평면의 방향성과 축성을 왜곡하여 기존의 중력에 순응하는 형태, 공간 경험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수직성과 수평은 중력장안에 존재하는 우리들의 위치와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으로 건축디자인표현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질서로 작용하는데 그것으로부터 탈피는 중력의 작용방향을 왜곡함으로써 표현되는 그 결과로 기존의 경험과 예측으로부터 벗어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다.

(3) 불연속적 표현(Decontinuity)

혼합, 중첩, 왜곡, 삽입, 우연의 구성을 통해 연속성을 해체한다는 뜻이다.

건축디자인에서의 연속성이란 두 가지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하나는 내적인 관련성으로 이는 실제적인 공간의 병렬을 다루는 유형학 적이며 형태학적인 선행 건축과의 공간적 연속성과 건축디자인에 대해 사회적이며 실용적인 요구를 집약하고 건축을 그러한 요구에 적합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건축과 사회사이의 연속성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4) 이접적 표현(Disjunction)

이접(Disjunction)은 분리, 분열의 상태를 말한다. 이 개념은 극한(Limit)과 방해의 아이디어로서 건축가가 어떤 부분들을 종합화하고 조화시키는 것은 오히려 외부의 문화적 조건과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려는 시도이다. 이것은 건축의 정적이고 자발적인 구조적 견해와 움직임 등과 충돌함으로써 단지 건축 적인 요소가 있는 곳인 시간과 공간에서 체계적으로 분열을 만들어내는 영속적이고 기계적인 작용을 내포한다.

3.3. 해체주의 디자인의 형태구성의 특징

(1) 중첩성

해체주의 건축가들은 형태의 창작요소로서 중첩의 방법을 사용하는 데 사전적인 의미는 여러 층이 겹쳐서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또 건축디자인의 중첩은 동시성, 침투성, 시공, 투명성, 중합, 다층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이러한 중첩과정을 통해서 각각의 요소는 원형과 다른 형태, 미로서 창출되거나 의미가 혼합되어 재구성된다.⁷⁾

현대건축에서 중첩성이 등장하는 것은 방향성, 전환성, 투명성, 지향성, 문맥성등을 표현하기 위해서이며, 의미는 중첩을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은 역사적인 중첩 즉, 데리다가 논의하는 혼적, 차연, 상호텍스트성의 표현이기도 하다.

중첩의 요소에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 중요한 것은 선적요소 즉, 축인데 축의 중합은 중첩선의 표현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면이나 공간의 중첩도 결국 선의 중첩성의 표현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면이나 공간의 중첩도 결국은 선의 중첩, 즉, 축의 중합이나 치환의 결과로 인식된다.

(2) 형태의 왜곡과 단편화

해체는 수학적 세계관의 출발인 이성의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으므로써 종래의 기하학적 어휘의 완전성에 대한 부정으로서 형태의 왜곡과 단편화를 이용한다.

형태의 단편화는 전형적인 전체가 차지할 자리가 상실되는 것이며 구성도 이미 고전적인 직교 좌표 위에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 속에 상상되고 감각에 의해 촉발되어지는 형태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로써 전체의 이미지는 부유하는 형태를 나타낸다.⁸⁾ 따라서 이것은 전술한 중력적 형태표현에서 보이지듯이 경사진 벽면과 기울어진 벽면 등의 중력의 왜곡과 함께 비정형의 추상 기하학을 이용한

5)정략원, 해체주의적 구성을 바탕으로 한 공간구성의 원리 및 Design 특성에 관한 연구, 신구전문대, 논문집 제 14집, 1994, p.295

6)Peter Eisenman, Conceptual Architecture, A+U, 이호정역, 집문사, 1988, p.18

7)남형우, 현대 건축에 나타난 공간 형태의 중첩성에 관한 연구, 영남대 석사학위 논문, 1989, p.9

8)김능현, 실내디자인의 해체적 구성경향, PID, 9205, p.10

다. 따라서 왜곡된 원, 중심을 인지할 수 없는 원호들, 다양한 곡률을 가진 곡선들, 평행하지 않은 선, 부정형 등이 사용된다.

(3) 스케일링의 변환

스케일링의 방법은 프랑스의 수학자 만델블로의 프랙탈 기하학개념이 차용된 것으로서 형상의 변화 없이 크기가 변하는 변형과정이다. 이를 실현하는 과정은 우선 선택된 형상을 원래의 문맥으로부터 분리, 독립시켜 다른 자리로 옮기고 이 기본형을 축소 또는 확대하여 변화시킨다. 새로운 문맥을 만든다. 이러한 수법에 의해 즉, 기본형에 해당하는 형상이 지니게 되는 단편적 기억이나 의미를 수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문맥과 절연시킴으로서 의미는 유보되고 형태는 자유로와 진다.

(4) 형태의 유희

해체 정신에 근본을 둔 가장 그럴듯한 형태의 유희는 구속된 상태에서 끌어내어 차연의 운동으로 의미를 변환시키며, 항상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활발히 일어나고 이러한 형태들은 다른 형태들과의 상호관계 및 내부의 프로그램의 변화를 통해 불안정한 의미를 보충해 간다. 이 상호관계 및 변화는 은유적이기보다는 전환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형태의 유희는 '차연'과 유사한 개념으로 차연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차별화 되는 동시에 시간적으로 지연된다는 이중적 개념에 의해 어떤 의미나 진리도 그것이 표현하고자 하는 개념과 완전히 부합될 수 없음을 지시하는 데리다의 해체주의의 철학적 어휘이다. 그가 주장하듯이 모든 개념은 아이들의 체계적인 유희를 통해 서로를 언급하거나 다른 개념들을 언급하는 시스템이나 연쇄고리 속에서 명시되어 진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해체주의의 디자인 개념

디자인 개념	형태의 표현 방법	디자인 형태
· 혼적 - 과정으로써의 디자인 - 양식의 해체	· 탈구성적 표현 - 전위, 변형, 분리, 분열	· 중첩 - 동시성, 침투성, 시공, 중합, 투명성, 다층, 방향성, 전환성, 지향성, 문맥성, 의미의 중첩
· 차연 - 차이와 지연 - 분해 - 형태의 유희	· 혼적 - 과정으로써의 디자인 - 양식의 해체	- 혼적, 차연, 상호텍스트성의 표현
· 산중 - 의미의 불확정성 - 단편화와 혼성	· 탈중력적 표현 - 중력의 반발적 표현 - 중력작용의 왜곡	· 형태의 왜곡과 단편화 - 중력의 왜곡
· 보충 - 혼적 - 기능의 해체	· 불연속적 표현 - 혼합, 중첩, 왜곡, 삽입 - 연속성을 해체	- 비정형의 추상 기하학적 표현
· 상호텍스트성 - 인용의 과정 - 텍스트성미의 산중	· 이점적 표현 - 분리, 분열의 상태 - 체계적이고 이분적인 도구	· 스케일링의 변환 - 크기의 변형과정 - 기본형의 축소와 확대 · 형태의 유희
		- 차연의 유사개념 - 개념적 과정과 체계적 가능성

4. 피터 아이젠만의 작품 분석

피터 아이젠만은 현대는 불확실성의 시대이므로 이 시대에 맞는

건축디자인은 종래의 인간 중심적인 접근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 즉, 현대사회의 특징인 불확실성과 비연속성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는 확신아래 끊임없는 자신만의 방법론을 추구하고 있다.⁹⁾

현재까지 발간된 그의 작품내용의 흐름을 크게 3시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각 시기별로 대표적인 작품과 함께 개략적인 접근방법을 살펴보면 초기 주택작품시리즈의 주개념은 도형의 변형으로서 도형을 통해 내재적인 성질을 분석하고 이동, 회전 또는 중첩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얻어진 도형들의 생성과정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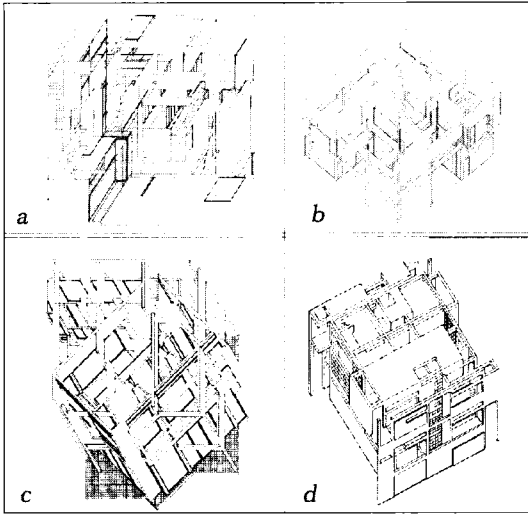
80년대 이후의 작품에서는 아이젠만이 주택이후 더 강하게 현대적인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접근방법을 찾아내는 데, 이것은 대지의 장소성과 역사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개념을 깨뜨리고 새로운 개념의 시간과 공간을 도입한 작품시기로 더욱 해체적 경향이 나타나고 혼적의 개념이 주로 나타나게 되는 시기이다.

추상적이고 동시에 난해하며, 불확실성의 현실을 표현하고자 하는 90년대 이후의 최근 작품경향은 현실만큼이나 복잡하고 모순적이다. 기존의 관념을 벗어나고자 하였으나 기능에 있어서 절대적인 부정은 불가능했다. 이러한 한계를 느낀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한 시도로 더욱 뒤틀리고 변형된 그리드와 부재의 재현으로 표현되고 내적인 특성은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4.1. 초기의 주택작품 시리즈

번호 1과 2로 매겨진 아이젠만 최초의 집들은 르 꼬르뷔제의 '빌라 사보이'에서 쓰여졌던 모더니스트의 형식적 구분론을 그대로 취하고 있다. 반면에 집 3과 집 4는 순수한 형식주의의 스타일을 재현한다. 예를 들면 그것은 집 4에서와 같이, 분열된, 밀고 들어간 식당 공간 내에 기둥과 대들보를 포함하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아이젠만은 그 기둥들이 "거주자에 따라 쉽게 예견될 수 없는 분위기에서 식사하는 경험을 주기 위한 것"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기둥과 주거사이에는 주거의 기능적인 측면 또는 기능과 상반되는 측면 모두와도 관계가 없다. 다시 말해 여기서 작용하는 것은 미리 결정될 수 없는, 어떠한 견지에서도 뚜렷한 목적을 갖지 않는 결과들이 만들어낸 관계성 자체일 뿐이다. 그 집들에 대한 아이젠만의 접근은 뚜렷한 의도성 또는 목적성을 전위시키는데 있었다. 그는 집 4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 집의 디자인 프로세스는 전위시키는 능력을 활성화시키고 그로 인해 거주를 위한 형태적 가능성으로의 탐색을 확장시킴으로써, 건축행위를 통해 건축의 형이상학과의 만족스러운 관계를 전개시키기 위해 의도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듯 아이젠만의 의도는 한 장소적 공간에서 예측될 수 없고 의도하지 않은 것을 허용하기 위한 데 있었다. 따라서 디자인은 더 이상 최종적으로 설정된 궁극적 목적, 즉 텔로스 (telos)로 축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9)신준규, 피터아이젠만과 그의 건축 세계, 건축가, 9306, p.11



<그림 1> 주택 제 1 호(a), 제 2 호(b), 제 3 호(c), 제 4 호(d)의 역소노메트릭.

아이젠만의 주택 작품 시리즈는 구조주의 법칙을 사용하였으며 건축 내부의 법칙을 발견하고 건축의 순수성을 찾는 노력을 경주하여 설계과정상의 법칙을 중시하였다.

<표 3> 초기 주택작품에 나타난 디자인 개념

디자인 개념	형태의 표현방법	디자인 형태
· 언어 · 수사학적 개념 · 텍스트성 · 카드보드 · 심층구조 · 분해 · 형태의 변형생성 · 스케일링	· 형태의 유희 - 기하학적 변형 · 요소의 조합 - 전 치 - 회 전 - 비례의 변화 - 매스의 중첩 - 스케일링	· 기능 없는 벽과 기둥 · 데스틸, 르꼬르 뒤제적 스타일 · 단순한 부분 · 복잡한 전체 · 변형된 단순기하형태

4.2. 80년대의 작품

(1) 오하이오 주립대학 시각예술 센터

디자인 개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흔적이다. 시각적으로 가장 먼저 인지되는 원형의 탑은 1958년 화재로 소실된 병기고의 이미지를 추상화된 은유로써 표현 한 것인데 병기고를 원래의 모습으로 재건하는 대신에 건물의 자취로서 병기고의 기초 석을 보존하



<그림 2> Waxner Center for the Visual Arts.



<그림 3> Bio Centrum.

고 있다. 새로운 건물은 오래된 건물의 단편적인 복원으로서 역사 회복의 불가능을 의미하면서 존재한다.

병기고의 단편적인 복원은 현재의 시간에서 역사를 회상하고 기억의 계속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따라서 시각예술 센터의 설계는 고고학의 발굴에 대한 사상을 바탕으로 전개되었다. 이 건물에 있어서도 기능에 대한 직접적인 거부가 표현된다. 계단의 중앙에 세워진 기둥, 기울어진 벽, 경사진 보 등을 통해서 이제까지 우리들을 지배해 왔던 수직적인 세계와 관례적인 행위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이는 목적론을 해체하는 또 다른 예로서 존재한다.

(2) 프랑크 푸루크 괴테 대학 생물학 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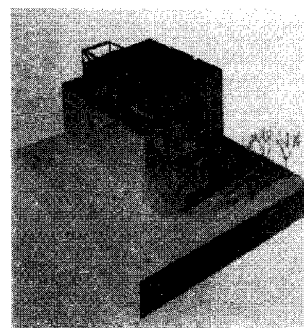
오늘날의 생물학이 전통적 과학으로부터 벗어나려 하는 것처럼 생물학 센터도 전통과 건축규범으로부터 탈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생물학과 건축 양 분야의 경계선을 무너뜨림으로써 다른 새로운 형태적 시도를 하고 있다. 즉, 그는 전통적인 생물학 표현과 결별하여 DNA과정의 생물학적 개념을 기하학적으로 받아들여 건축 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전통적 건축 표현과도 결별하여 고전적 유클리드 기하학을 파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 의해 만들어진 생물학 센터는 건물의 형태뿐만 아니라 건물의 외장과 색채, 투명·반투명 유리, 그리고 벽 등의 여러 요소들이 건축자체의 기능이나 의미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DNA과정(복제, 전사, 번역)을 표현하거나 적어도 암시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3) 카네기 멜론 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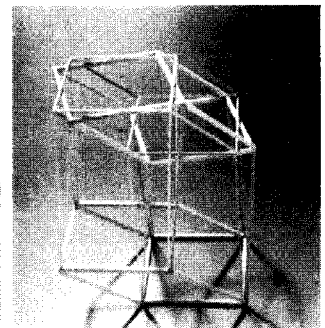
건물의 설계에 앞서, 카네기 멜론 대학장은 현대 정보 사회의 상황을 표현 할 수 있는, 나아가서 인간의 정보에 대한 극복 가능성을 상징화시킬 수 있는 건물을 요구하고 있다.¹⁰⁾

이에 대해 아이젠만은 건축의 개념화에 대한 전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단순히 중력에 대한 저항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런 극복을 상징화시킬 수 있는 수법에 관한 것이다.

아이젠만은 인간 지식의 발전을 기하학적으로 은유하기 위해 불레(George Boole)의 입방체를 건축에 적용한다. 그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공간이 형성되고, 우연히도 이는 중력에 반(反)하는 형태를 갖게 된다.



<그림 4> The Carnegie Mellon Research Institute



<그림 5> Boole의 입방체

10) 카네기멜론 대학장의 요구, Peter Eisenman, Carnegie Mellon Research Institute, A+U, 1990. 1.

<표 4> 80년대의 작품에 나타난 디자인개념

디자인 개념	형태의 표현방법	디자인 형태
· 흔적 · 스케일링 기능해체 변형생성 · 상징적 은유 재상적 과정	· 전 치 · 그리드의 변위 · 교 차 · 변 형 · 분리/분열 반복 축의 중첩과 삽입 형태의 유희 왜곡 변위	· 뒤틀린 형태 · 그리드의 일반각 교차 · 꼬인 형태

4.3. 90년대 이후의 최근작품

(1) 막스 라인 하르쯔 하우스

막스 라인 하르쯔 하우스의 주된 디자인적 개념은 상징적이고 재생적 과정이다. 유명한 영화 기획사에서 따온 이름으로 이전의 극장이 있던 부지에 위치한다. 이 상징주의는 독일인의 미래에 상징적 비전을 조합시켜 오히려 후퇴하기보다는 앞선 것처럼 보인다. 이 프로젝트는 라인하르쯔의 힘과 비전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즉, 현재의 미디어 센터로서 이 건물은 프리즘 적인 특성으로 가정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자체적으로 접힌 층(fold)을 필요로 하나 역시 그 자체는 개방되어야 한다. 따라서 디자인의 형태는 거의 파편적인 형태와 은유적인 관계의 연속적 배열로써 특징 지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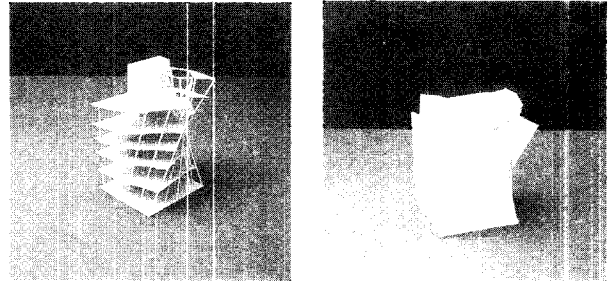
<그림 6> 평면도 및 단면도

(2) 임멘도르프 하우스

임멘도르프 하우스 뒤셀도르프 항의 해안에 있는 257평방 미터 대지에 위치한 이 프로젝트에는 대지의 남서쪽에 광장을 설계하는 있다. 뒤셀도르프 시는 항구 지역을 역사적 거리로 지정하고, 창의적 예술의 중심이 되도록 장려하고 있다. 건물의 굽은 형태는 솔리톤 파장의 분석에서 나온 것인데, 이는 급격한 깊이의 변화나 지하에서 일어나는 물의 지진 패턴으로 인해 비선형적으로 반응하는 파장이다. 솔리톤은 계속 변화하며, 물 속을 움직이면서 없어졌다가 새로 나타나면서 하나의 형태를 만들어 낸다.

임멘도르프 하우스를 구성하는 내부 볼륨과 외부 볼륨에는 경사진 면이 수직으로 뒤틀리면서 교차되어 있는데, 건물의 꼭대기에 소용돌이 모양의 원추가 형성되었다. 외부 볼륨은 다양한 폭으로 유리

와 떨어져 있는 루버와 1m 높이의 유리창으로 된 계단식 유리 표피가 교대로 나타난다. 내부 볼륨은 유리창이 있는 벽으로, 표면에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어 있다. 바깥쪽의 유리 볼륨을 통해 외부에서 보면, 내부 볼륨은 6층 높이 벽화와 건축주의 예술 작품을 전시하는 전시장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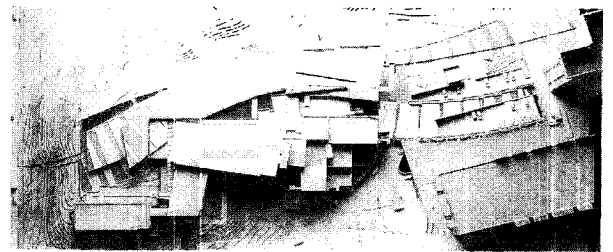


<그림 7> Immendorf House

(3) 디자인 예술 센터

아로노프 센터의 프로젝트에서 추구한 효과는 분명 격자가 있는 대지의 모순적 배치보다는, 언제나 중재 또는 각 프로젝트의 형태적 구조의 융화였다. 형체는 그물망 속에서 구체화되었으며, 그물망은 지역적 흔적의 변형을 통해 만들어 졌다. 즉, 대지의 자연지형의 곡선, 기존 건물의 경계와 주어진 프로그램의 기하학과 공간의 양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 프로젝트의 특별한 점은 대지나 프로그램, 도시적 문맥 같이 가장 전통적인 규정의 원칙에 해당하는 범주를 탐험한 것이다. 이 같은 단계에서 설계된 프로젝트들은 곡선으로 계획이 포함되어 적 휘거나 주름이 잡힌 기하학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으며, 그의 관심이 초기의 구조와 요소에서 보다 연속적이고 볼륨적인 구성으로 변천했음을 말해준다. 요소들간의 복합적 관계는 하나의 시스템이나, 복합적 굴절과 밀도와 규모의 경사가 있는 형태로 진화된다. 이러한 기술을 보완하고 희미한 욕망이나 특수효과를 인정하면서 아이젠만은 그의 초기작을 이루던 모순과 파편화의 해체주의 기법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

이 단계에서 매우 흥미로운 점은 비트는 기술의 출현, 또는 불균형적 혹은 지수적 비율의 도입이다.



<그림 8> Aronoff Center for Design and Art

최근 작품에서는 기존의 작품에서 보다 다양한 디자인의 어휘뿐만 아니라 디자인 표현형태로 진보적인 경향을 보인다. 또한 상징적

인 은유나 재생적 과정은 보다 추상적인 개념으로 접힌 층(fold)과 프리즘적 특성으로 해체의 산중의 개념과 같은 퍼져나가는 물결의 형태인 솔리톤적인 파동형과 그것이 소용돌이치는 원추형으로 연속적 변형과정이 표현되고 있다.

<표 5> 90년대 이후 최근 작품에 나타난 디자인 개념

디자인 개념	형태의 표현방법	디자인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유적 유추 -일본의 지진활동 · 변형생성 -연속적 지진에 의한 파괴된 형태 · 상징주의적 표현 -독일의 미래비전 · 재생적 과정 · 위크(Weak)이미지 · 솔리톤(Soliton)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왜곡 -유연성의 표현 · 전치, 변형, 치환 · 반복, 분해 · 평면의 회전 · 분리/분열 · 매스의 교차 · 매스의 중첩과 삼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하학적 형태 -경사진 모, 벽, 기둥 · 비선적의 형태 · 프리즘적 형태 · 파동적 형태 · 꼬인 형태 -소용돌이의 원추형 · 뒤틀린 형태 · 접힌 형태 -차양루버의 음영처리 · 물결의 형태

5. 결론

피터아이젠만은 그의 도전적인 건축에의 탐구를 통해 널리 알려진 건축가이자 이론가로서, 주택시리즈부터 현재에 해체경향을 보이는 이 시점까지 현실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을 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디자인 방법론을 추구하고 있다. 그의 초기 주택작품들의 경향을 정리하면, 그는 건물의 외관이나 개개의 구성요소가 지니는 의미에는 관심이 없고 형태와 형태와의 관계, 그리고 이 관계가 만들어내는 체계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그는 고전적인 건축가들이 요소들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구조나 기능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소들을 반영하여 설계과정을 진행시키는 것과는 달리 건축 자체의 요소라고 할 수 있는 형태에 관심을 집중하여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건축가들은 디자인에 있어서 기능과 형태의 변증법적 통합을 추구한다. 그러나 기능과 형태의 문제를 따로 생각하는 경우와 달리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생각하는 경우의 문제점들은 객관적인 법칙화가 어렵다. 특히 그의 주택 시리즈는 건축의 물리적, 의미론적 배경들과 결별했기 때문에 어디에 놓여져도 상관이 없는 일종의 오브제로 대중과 큰 괴리를 낳는 비 세속적인 건물이다. 또한, 그의 80년대 이후부터 최근의 작품은 추상적임과 동시에 난해함을 부인할 수 없다. 불확실성의 현실을 표현하고자 했던 그의 최근 작품세계는 현실만큼이나 복잡하고, 지울 수 없는 모순을 안고 있다. 기존의 건축개념과 싸우며 부정할 수 없었던 요소는 건축물은 기능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형태는 의지의 표현이 가능했으나 기능에 있어서 절대적인 부정이 불가능했다는 점이다. 또한 복잡할 수밖에 없었던 설계구체화 과정에서도 절대적인 논리의 전개를 위한 노력이 결단의 과정에서 종래의 미적 관심으로 주저앉는 모습을 종종 접할 수 있었던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디자인 문제에서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이 바로 다 차원적 문제해결이다. 그의 디자인에서의 건축의 현실적, 기능적 가치가 소홀히 취급되었다.

아이젠만의 건축 그 자체에 대한 발달에는 통상 우리가 건축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회의가 있다. 이 회의의 철저함과 그의 논문 및 작품에서 나타나는 태도로부터 우리에게 그는 그가 전통적인 문화 및 역사와는 무관계하게, 어떠한 유산을 초래하지 않고 어떤 새로운 것의 탄생을 창조하려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거듭 반복되는 그의 입장과 견해를 통해 그의 딜레마를 엿볼 수 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휴머니스트 적인 건축의 본체를 해체하길 원하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더욱 그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바라는 것, 이 두 가지 상반된 요구를 모두 실현시키고자 하는 모순된 욕망이 바로 그것이다.

참고문헌

1. Perter Eisenman, EL croquis, 1997.
2. Peter Eisenman, : Deconstruction ; Omnibus Volume, Op.
3. Peter Eisenman, Conceptual Architecture, A+U, 이호정역, 집문사, 1988.
4. Richard Kearney, 현대 유럽 철학의 흐름, 임현규의 옮김, 한울, 1992.
5. 김능현, 실내디자인의 해체적 구성경향, PID, 9205.
6. 남형우, 현대 건축에 나타난 공간 형태의 중첩성에 관한 연구, 영남대 석사학위 논문, 1989.
7. 신준규, 피터아이젠만과 그의 건축 세계, 건축가, 9306.
8. 양세은, 해체주의의 관점에서 보는 조형 언어적 개념과 실내 환경 디자인에의 접근 방법에 관한 연구, 이대 석사학위논문, 1993.
9. 이광래, 미셀푸쿠, 민음사, 1989.
10. 정락원, 해체주의적 구성을 바탕으로 한 공간구성의 원리 및 Design 특성에 관한 연구, 신구전문대, 논문집 제 14집, 1994.
11. 최인환, 데리다의 해체이론의 전략과 한계, 민음사, 1988.

<접수 : 1999. 11. 3>